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1.16)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분	내용	비고
은행간 환율	110.00 Tk/USD (전주대비 0.00△)	'24.1.16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12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8.84% (전월대비 0.81△)	'23.12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2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0.0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reached its **1 year maximum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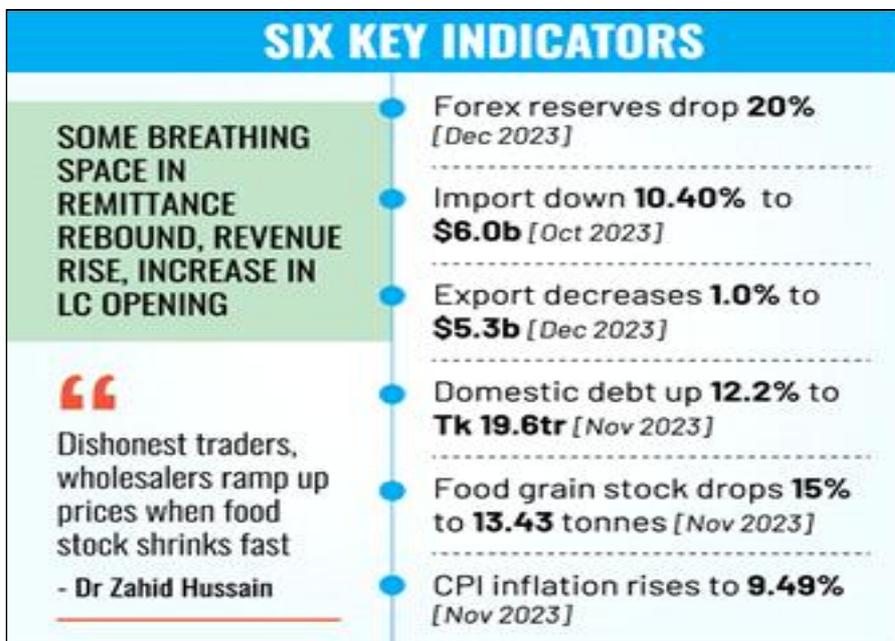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0.0 bp	8.505 % Jan 9, 2024	No change	8.505 % Jan 16, 2024
1 Month	0.0 bp	8.505 % Dec 16, 2023	No change	8.505 % Jan 16, 2024
6 Months	0.0 bp	8.505 % Jul 16, 2023	No change	8.505 % Jan 16, 2024
1 Year	0.0 bp	8.450 % Jan 24, 2023		8.505 % Jan 16, 2024

Current Yield: 8.505%
Last update: 16 Jan 2024 0:15 GMT+0

□ 대다수 거시지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방경제의 대다수 거시지표는 새 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보여줌. 중앙은행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한 주요 경제지표 9개 중 6개가 악화, 경제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을 시사.
- 중앙은행의 경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외환 보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

- 보고서는 작년 10월 수입액이 10.40% 감소한 약 6.0달러를 기록했다고 언급, 이는 생산 및 공급 하락의 도미노 효과에 따른 것. 수출진흥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수출·수입액은 1.0% 이상 감소한 53억 달러를 기록.
- 국내 총부채 잔액은 11월 기준 12.2% 급증한 19.6조 Tk를 기록.
*총선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시기, 2023년 10월 잔액은 19.4조 Tk.
- 식량 곡물 재고는 11월에 13.43톤으로 15%이상 감소.
- CPI 물가상승률은 연간 목표치보다 3.5%포인트 상승해 9.49%.



□ GDP 성장률은 FY24에 5.6pc하락

- ̂경제 성장은 선거로 인한 민간 부문 활동 위축에 따라 현재 재정 대비 5.6%로 둔화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WB) 발표.
- 글로벌 대부업체도 수정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회계 연도(FY) 2023~24년 6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춰 차기 회계연도 성장률을 5.8%로 전망.
- 수출 대상국, 특히 유럽연합에서의 예상보다 느린 성장이 성장 전망 위험을 더욱 가속화.



-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고조는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예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6%는 지난 회계연도인 2023년에 달성한 6.03%보다 0.43%포인트 낮고, 현재 회계연도인 2024년에는 정부 목표치인 7.5%보다 1.9%포인트 낮은 수치임.
- 한편,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경제 둔화와 1월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등 거의 같은 이유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률을 6.2%로 0.3% 포인트 하향 조정.
- 국제통화기금(IMF)도 작년 10월에 2020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치를 6.0%로 이전 전망치인 6.5%보다 낮은 6.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한 주의 당부

- 총리는 새 각료들에게 돈 낭비가 심한 불필요한 사업을 말지 말라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라고 한 장관이 발언. 동시에, 총리는 국민에 이익이 될 프로젝트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또한,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질의 하면서, 내각에 인위적인 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재기를 겨냥한 정기

적인 압수수색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함.

- 이어 장관들에게 부패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을 상기시킴. 그녀는 장관들에게 송금 유입을 늘리고 휴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AL 지도자들과 활동가들과의 의견 교환 회의에서 총리는 정부의 우선 과제가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임을 상기시킴.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 압두스 살람 신임 기획장관, 외자 사업 및 농촌 연계 최우선 과제

- 압두스 살람 신임 기획부 장관은 "앞으로 5년 안에 이 나라의 외자 사업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14일 사무국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자사업 승인 절차가 신속해질 것이며, 외자사업의 이행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
- 장관은 외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시에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해외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외자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놓일 것입니다"라고 언급.
- 또한, 농촌 개발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농촌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중요도를 언급. "포장된 도로는 농촌 주민들이 도시 지역으로 편리한 여행을 용이하게 하여 증가된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결과적인 농촌 경제의 성장은 우리의 핵심 경제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힘.

□ 운송 부문, 집행 지연으로 15pc 예산삭감 제안

- 개발 예산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프로젝트가 수행 지연됨으로 인해 현재 예산 배정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거나 삭감할 것이 제안됨.

- 개정 연간 개발 프로그램에서 운송부문의 삭감분은 15.32%에 이르러, 현 회계연도의 나머지 할당액은 3,948억 1,000만 Tk에 그침.
- *도로 및 고속도로부(RHD), 다카 대중교통 유한회사(DMTCL), 교량 및 다카 교통 조정국(DTCA)과 같은 기관을 포함하는 이 부문의 원래 할당은 4131억 1천만 Taka였음.
- 다카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관인 DMTCL은 운송 부문 내에서 가장 가파른 감축안에 직면. 계획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정된 할당액은 초기 821억 5천만 Taka에서 54% 감소한 377억 1천만 Taka가 될 것.
- 올해 단일 개발자금 최대 보유부처인 RHD는 66억2000만 Tk를 포기해 당초 2,361억3000만 Tk 대비 수정된 배분액은 2,427억5000만 Tk로 줄어듬.
- 주요 기관들을 종합해 보면, 교통 부문 예산의 또 다른 주요 수혜 기관인 BBA는 14%의 삭감을 제안하고 있으며, 수정된 할당액은 초기 882억 2천만 Tk에서 755억 2천만 Tk로 감소.

□ 다카고가 고속도로, 올해 완공 예정

- 오바이둘 퀴더 도로교통교량부 장관은 9일 다카고가도로(Dhaka Elevated Expressway) 건설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힘.
- 다카고가도로 건설공사의 50%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다카공항에서 팜 게이트(Farmgate)로의 구간은 이미 운영중으로,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남은 건설공사는 202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
- 파드마 대교에 대한 내용으로는, 장관은 매일 Tk 2크로어의 통행료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총 통행료 징수액은 Tk 1,252크로어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 수입원이 국가 경제 활동에서 대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
- 아울러 장관은 가지푸르 BRTA 사업이 올해 6월까지 완료되는 것과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또 하나의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개선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심각한 추위로 시민의 고통 증가

- 1월 중순, 뼈가 시린 추위가 전국을 덮치면서,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 한파가 휩쓸고 있으며, 다카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 기상학자들은 추운 날씨가 1월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기상청에 따르면 디나즈푸르(Dinajpur)의 최저기온은 8.8도, 추아당가(Chuadanga)의 최저기온은 9.5도를 기록. 2023년 1월 13일 다카의 최저기온은 13.9도.

□ 방글라데시, 6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성명을 강력히 거부

- 다카 총리는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실시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선거와 관련해 6개 국제시민사회기구(CSO)가 발표한 편향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공동성명을 강력하게 거부.
- 외교부는 2024년 1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밝힘.
- 성명은 "새로운 선거를 하자는 터무니없는 요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고 평화로운 선거를 실시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정부에 쏟아 부은 찬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